

#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작 ... 전국 18개 병원에서 가능

전국 18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와 병원행정처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5월 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읍·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낸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



독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스캔 또는 촬영)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서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미즈메디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 △삼빛병원 △분

당제일여성병원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부천 서울여성병원 △인천 서울여성병원 △대구 신세계여성병원 △에덴병원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파티마여성병원 △한대여성아동병원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통해 부모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금은 18개 참여병원으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개별 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확대 추진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 환자의 과거 약물알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거점의료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4곳이 추가 선정돼 총 15곳이다. 참여의료기관은 1322곳에서 2316곳으로, 문서저장소는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거점의료

주혜진 기자 hjoo@

# 대학생 때 배웠어야 할 능력 1위 '의사소통'

## 일자리 적응에 어려운 점 1위 '업무내용습득'

대학 취업자에게 대학 재학 때 배웠어야 할 능력을 물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을 고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업무내용습득을 꼽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문대학과 대학 졸업자 1만8026명을 표본으로 전체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한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에게 대학 때 배웠으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됐을 능력을 물었을 때, 의사소통능력(19.1%)을 고른 사람이 가장 많았다. 문제해결능력(16.2%), 기술이해 및 활용 능력(16.1%), 대인관계(13.8%)가 뒤를 이었다.

현재 일자리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내용습득(43.2%)을 고른 사람이 가장 많았다.

상사-동료와의 관계(23.3%), 기대수준과의 격차(15.2%), 건강/체력문제(6.1%)가 뒤를 이었다.

대학 전공 지식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대체로 도움됨 및 매우 도움됨)고 응답한 비율이 48.6%, '도움이 안된다'(별로 도움이 안됨 및 전혀 도움이 안됨)는 24.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53.6%)이 남성(47.6%) 보다 높았다.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를 물었을 때 '잘 맞는다'(잘 맞음 및 매우 잘 맞음)고 응답한 비율은 50.0%, '잘 맞지 않는다'(잘 맞지 않음 및 전혀 맞지 않음)는 26.2%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52.6%)이 남성(47.4%) 보다 높았다.

현재 일자리의 업무수준이 자신의 기술수준과 비교했을 때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69.8%)이 남성(67.9%) 보다 높았다.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날간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시설 입소 보다 재가서비스 원해

## 노인 절반 이상 "거동 불편해도 집에서 여생 마치고 싶어"

노인 10명 중 6명은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4~11월 전국 934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노인 및 독거노인 증가=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비중이 21.7%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인 5명 중 1명이 고령노인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74.1세로 2008년 72.9세, 2014년 73.9세에 비해 높아졌다.

독거노인도 2008년 19.7%에서 2017년 23.6%로 증가했으며,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단독가구 생활상의 이

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2014년 12.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이별 때 간혹,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등 독거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만성질환 평균 2.7개 보유= 노인의 89.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자는 51.0%로 2008년 30.7%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흡연을 10.2%, 음주를 26.6%, 운동실천을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건강검진 수진율은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나타났다.

노인의 21.1%는 우울증상을 보였다. 6.7%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자살 시도한 사람은 13.2%였다. 14.5%는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다.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이 높았다.

△시설 입소보다 재가서비스 선호= 노인의 78.9%는 현재 주거지에 만족했으며,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31.9%는 돌봄,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원했다. 90% 이상은 유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다.

△노인 연령기준 '70세 이상'=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86.2%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1.8%는 연령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해 연령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백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와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 활용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외국인환자 문화적 차이 고려한 마케팅 전략 중요

## 지속적인 QI활동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목적지 국가로 성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메디컬 코리아 2018'이 '글로벌 헬스케어 : 변화를 넘어 기회로' 주제로 개최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등 4개 분야 10개 세션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질 관리 전략' 세션에서는 박선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QI팀장이 병원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환자를 위한 서비스 및 QI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박선경 팀장은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러시아환자를 위해 그림으로 표현된 설명매뉴얼, 러시아어로 된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에게 러시아어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달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환자의 불편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QI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 제바(Ilan Geva) 이안 제바&프렌즈 대표는 "여러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특화시켜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객 경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2018년 간호역량강화교육 '환자 돌봄에서의 의미 발견'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간호역량강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명	환자 돌봄에서의 의미 발견
강사	김미라(한국로고테라피연구소 소장)
일시	2018. 7. 17(화) 14:00~17:00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11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없음
신청기간	2018. 6. 11(월)~7. 8(일)

\*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 교육 → 오프라인 무료교육 '환자 돌봄에서의 의미 발견' 검색 → 신청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세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0638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 이직방지 교육지원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생한 간호술기 숙달교육!

전국 권역센터 상시 실기실 오픈!

- 대상 : 실기 교육을 희망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 내용 :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간호술기 15가지
- 강사 : 센터 강사표준화 교육 이수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표 전화 1522-1755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신규간호사실기교육신청한태택: 6월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이직방지' 혹은 '조직문화개선교육' 우선 지원  
\*신청 대상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500명상 이상 종합병원